

# ‘溼’字上古聲母考<sup>\* \*\*</sup>

金俊秀<sup>\*\*\*</sup>

## < 목 차 >

1. 緒論
2. 字形分析
  - 2.1 《說文解字》에 수록된 관련 글자들 : 溼·濕·隰·塉·晞·顯
  - 2.2 古代漢字자료를 이용한 《說文解字》의 오류 정정 및 諧聲 계열 재정리
    - 2.2.1 溼字의 字源 및 字形 변화 과정
    - 2.2.2 顯字의 字源 및 字形 변화 과정
    - 2.2.3 諧聲계열 재정리
3. 上古音分析
  - 3.1 기존 재구음 분석
  - 3.2 金文의 通假例 및 ‘囊(갑자기 공격하다)’의 本字
  - 3.3 수정 재구음 제시
4. 結論

## 1. 緒論

중국어의 音韻史는, [1] 周秦시기의 상고음(Old Chinese) · [2] 隋唐시기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8018697).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서울: 숙명여자대학교, 2014년 11월 8일)에서 요약문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 西原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

중고음(Middle Chinese) · [3] 明清시기의 근대음(Old Mandarin)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상고음은 시대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뿐더러 중고음과 달리 韻書가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면모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乾嘉學派로 대표되는 清代의 유학자들은 《詩經》의 用韻 및 《說文解字》의 諧聲字에 근거하여 상당한 연구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다만, 그들의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주로 韻部의 분류에 치중되어 있으며, 표음부호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상고시기 중국어의 구체적인 소릿값을 再構(reconstruction)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漢唐시기 산스크리트 문자와의 만남이 韻書의 탄생을 촉발시켰듯이, 현대의 音韻學 연구는 서구 언어학의 수용이 계기가 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베른하르트 칼그렌(Bernhard Karlgren) · 앙리 마스페로(Henri Maspéro) 등의 표음부호를 사용한 고대어음의 재구는 중국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중국 각지의 방언 · 한국 한자음 · 일본 한자음 · 베트남 한자음을 비롯하여 티베트어로 대표되는 친족언어 자료까지 활용한 그들의 연구는, 장구한 세월 동안 고대 典籍 자료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던 중국어 음운학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상고음 연구에 있어서는 칼그렌 체계 이후 1970년대에 등장한 李方桂 체계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쳤고, 비교적 최근에는 鄭張尙芳 체계 및 윌리엄 백스터(William H. Baxter)와 로랑 사가(Laurent Sagart)의 합작 연구성과인 B-S 체계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의 상고 재구음 체계는 고대 典籍과 같은 ‘중국어 내부자료’는 물론이고 친족언어와 같은 ‘중국어 외부자료’를 더불어 활용하여 이루어낸 성과인데, 이들이 사용한 ‘중국어 내부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본다면, 《詩經》 · 《楚辭》 및 기타 先秦문헌의 用韻, 그리고 《說文解字》에 수록된 諧聲字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중국어 내부자료’들은 清代 유학자들도 고음 연구에 사용하였던 것인데, 현대의 우리들은 ‘출토문헌의 古代漢字’라는 清代 학자들이 사용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중국어 내부자료’를 상고음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甲骨文의

출토가 이미 100년이 넘었으며, 최근 20여년간 竹簡자료의 대량 출토로 고대 한자학<sup>1)</sup>은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데, 고대한자학의 새로운 연구성과는 아래 몇 가지 사항에서 보이듯이 상고음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1) 상고음과 동시대의 텍스트

상고음은 전통적으로 周秦音이라고 불리었는데, 《詩經》시대의 어음을 기준으로 한다. 甲骨文은 이보다 약간 앞선 殷代의 점복 기록이고, 金文은 西周시기의 것이 대종을 이루며, 竹簡은 東周와 秦의 사이에 낀 戰國시대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출토문헌의 古代漢字’는 바로 우리가 재구하고자 하는 상고시기의 중국어를 적은 텍스트인 것이다. 현재 전해 내려오는 傳世문헌 대부분은 漢대에 經師들의 정리를 거쳐서 성립된 텍스트인데, 이에 반해 출토문헌은 후대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자료로, 先秦시기 판본의 모습을 현재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비록 한자가 표음문자가 아니기에 당시 어음의 구체적인 면모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諧聲字 및 通假현상은 당시 어음의 면모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 (2) 傳世문헌에 보이지 않는 諧聲字와 通假현상

기존의 연구에 사용된 諧聲字는 《說文解字》에 수록된 글자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通假 역시 傳世문헌에 보이는 현상을 위주로 상고음 연구에 활용되었다. 그런데 출토문헌에는 지금껏 어떠한 傳世문헌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낯선 구조의 諧聲字 및 새로운 通假현상이 다수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상고음 재구에 있어서 그 어떤 자료보다도 더욱 직접적인 증거력을 갖는다.

www.kci.go.kr

1) ‘현대한자학’·‘근대학자학’과의 용어상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古文字學’을 ‘고대한자학’이라고 번역한다.

### (3) 《說文解字》의 잘못된 諧聲판단 수정

諧聲은 用韻과 더불어 상고음 재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고대 한자학의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說文解字》의 자형 분석에 오류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諧聲판단에 있어서도 역시 부분적인 잘못을 내포하고 있다. 《說文解字》의 잘못된 諧聲판단에 근거한 재구음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며, 그 수정의 근거는 고대한자학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諧聲판단이어야 한다.

이상 상고음 연구에 있어서 고대한자학의 새로운 연구성과가 가지는 중요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존의 상고음 연구에는 고대한자학의 성과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출토문헌의 古代漢字’ 자료에 근거하여 기존의 상고 재구음에 대하여 수정 재구음을 제시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최신 상고음 체계인 鄭張尙芳 체계와 B-S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溼字 및 동일 諧聲계열에 속하는 글자들의 상고 재구음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金文 자료에 의거하여 새로운 수정 재구음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字形分析

### 2.1 《說文解字》에 수록된 관련 글자들 : 溼·濕·隰·塹·爨·顯

‘축축하다’라는 의미의 濕字는 본래 ‘溼’과 같이 쓴다.<sup>2)</sup> 《說文繫傳·水部》

www.kci.go.kr

2)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本字인 ‘溼’을 사용한다. 참고로 대만의 標準字體에서는 本字인 ‘溼’을 회복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의 溼字條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붙어있다. “지금 사람들은 이 글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濕字로 이 글자를 대신한다.”<sup>3)</sup> 許慎은 溼字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說文·水部》：“溼, 음습하고 축축함을 일컫는다. 水에서 의미를 얻으며, 一은 덮었다는 것인데, 흙을 덮었으므로 축축한 것이다. 灞<sup>4)</sup>에서 소리를 얻는데, 형체가 생략되었다.”<sup>5)</sup> 즉, 許慎은 이 글자의 소전체인 “灞(溼)”을 水·一·絲·土의 결합으로 분석하고, 絲는 灞의 생략체라고 본 것이다. 宋初 徐鉉의 교열팀이 부가한 大徐本の 반절은 失入切로 중고음의 음운지위는 書母緝韻入聲開口三等이며, 현대 독음은 ‘습(shi)’이다.

한편, 溼字를 몰아내고 ‘축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濕字는 본래 강이름을 뜻하는 글자이다. 《說文·水部》：“濕, 강이름이다. 東郡의 東武陽縣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水에서 의미를 얻으며, 灞에서 소리를 얻는다. 桑欽이 平原郡의 高唐縣에서 흘러나온다고도 하였다.”<sup>6)</sup> 東郡 東武陽縣은 현재의 山東省 朝城縣 서쪽이며<sup>7)</sup>, 大徐本の 반절 他合切에 해당하는 중고음의 음운지위는 透母合韻入聲開口一等으로, 현대 독음은 ‘탑(tà)’이다. 그런데, 후대에 濕字가 溼字를 대체하게 됨에 따라 本音인 ‘탑(tà)’은 ‘潔’과 같은 자형으로 쓰게 되었다. 淸儒 顧藹吉은 潔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隸辨·入聲·緝韻》：“(潔字가 따르는) 累旁는 灞의 생략이다. 日이 田으로 잘못 변한 것에 불과하다. 顯字 역시 灞을 따르는데, 綏民校尉熊君碑에 보이는 顯字는 모두 ‘顯’과 같이 썼다. 이는 濕字가 ‘潔’으로 변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sup>8)</sup> 즉,

3) “今人不知有此字，以濕爲此字。”【南唐】徐鍇，《說文解字繫傳》淸道光年間祁雋藻刻本，北京：中華書局，1998年12月第2刷，溼字條，223쪽.

4) 小篆을 隸定하면 ‘灞’이 되나, 본고에서는 楷書의 자형에 따라 ‘灞’을 사용한다. 다만 인용문에서 ‘灞’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따른다.

5) “溼，幽溼也。從水；一，所以覆也，覆而有土，故溼也。灞省聲。失入切。”【東漢】許慎撰，【宋】徐鉉校定，《說文解字》同治十二年番禺陳昌治刻本，北京：中華書局，2004年2月第22刷，溼字條，235쪽. 본 논문에서 인용한 《說文解字》는 모두 大徐本이다. 이하 각주에서는 상세한 서지정보를 생략한다.

6) “濕，水。出東郡東武陽，入海。從水，灞聲。桑欽云：“出平原高唐。”他合切。”

7) 湯可敬，《說文解字今釋》，長沙：岳麓書社，2002年12月第3刷，濕字條，1517쪽.

8) “累卽灞之省，而譌日爲田耳。如顯亦從灞，綏民校尉熊君碑顯皆爲顯，與濕之爲潔正同。”【淸】顧藹吉，《隸辨》康熙五十七年項綱玉淵堂刻本，北京：2003年12月第2刷，濕字條，

濕字이 따르는 累旁은 ‘𣪠(=𣪠)’의 외변체로, 𣪠字의 생략체인 累字<sup>9)</sup>와 무관하다.

溼字와 濕字 외에도 《說文》에는 隰字와 𣪠字이 累旁에서 소리를 얻는다고 풀이되어 있다. 隰字는 ‘언덕 아래의 습지’라고 풀이되어 있으며,<sup>10)</sup> 大徐本 반절은 似入切로 중고음의 음운지위는 邪母緝韻入聲開口三等이고, 현대 독음은 ‘습(xí)’이다. 𣪠字는 ‘아래로 빠지다’라고 풀이되어 있으며,<sup>11)</sup> 大徐本 반절은 敕立切로 중고음의 음운지위는 徹母緝韻入聲開口三等이고, 현대 독음은 ‘침(zhǐ)’이다.

그런데 이들 글자의 소리부호인 𣪠字에 대한 許慎의 설명은 매우 혼란스럽다. 《說文·日部》: “𣪠, 여러 미세한 것들을 일컫는다. 햇볕 속에서 실을 보는 것이다. 古文에서는 顯字로 쓰이기도 하였다. 흑자는 여러 사람의 입 모양이라고도 하였으며, 唵字처럼 읽는다고도 하였다. 또 흑자는 繭字라고도 하였는데, 繭이라는 것은 숨 안에 간혹 보이는 작은 고치를 일컫는다.”<sup>12)</sup> 뜻풀이가 아리송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정확한 독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顯·唵·繭 세 글자의 상고음은 모두 가깝지 않으며, 𣪠字에 부가된 大徐本의 반절인 五合切 역시 顯·唵·繭 중 어느 글자의 독음도 아니다.

𣪠字와 자형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顯字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說文·頁部》: “顯, 빛나는 머리 장식을 일컫는다. 頁에서 의미를 얻고, 𣪠에서 소리를 얻는다.”<sup>13)</sup> 大徐本의 반절은 呼典切로 중고음의 음운지위는 曉母先韻上聲開口四等이며, 현대 독음은 ‘현(xiǎn)’이다.

이상 살펴본 𣪠字를 중심으로 한 諧聲관계를 《說文》에 근거하여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2쪽.

9) 포개다 루(lěi).

10) “隰, 阪下溼也。從自, 𣪠聲。似入切。”

11) “𣪠, 下入也。從土, 𣪠聲。敕立切。”

12) “𣪠, 衆微杪也。從日中視絲。古文以爲顯字。或曰衆口兒。讀若唵唵。或以爲繭; 繭者, 絮中往往有小繭也。五合切。”

13) “顯, 頭明飾也。從頁, 𣪠聲。呼典切。”

主諧字	讀音의 근거	上古韻部	被諧字	許慎의 諧聲판단	上古韻部
𩇑	顯	元部	溼	𩇑省聲	緝部
	唵	侵部	濕	𩇑聲	緝部
	繭	元部	隰	𩇑聲	緝部
	五合切	緝部	埶	𩇑聲	緝部
			顯	𩇑聲	元部

《說文》에 수록된 이상의 諧聲분석은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𩇑字의 독음에 대한 설명이 혼란스럽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찍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게 되어서 독음이 失傳된 글자이거나,<sup>14)</sup> 본래 독립된 글자가 아닌데 許慎이 자형 분석을 위해서 偏旁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내서 표제자로 세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sup>15)</sup> [2] 溼·濕·隰·埶 네 글자는 緝部에 속하는데, 유독 顯字만 元部에 속한다. 緝部와 元部の 古音은 매우 거리가 있으므로, 이 두 韻部에 속하는 글자들을 하나의 諧聲계열로 묶은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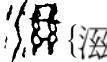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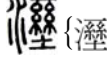
14) 이러한 예로 𣎵字가 있다. 𣎵字는 𣎵(제기 이름 𣎵)字의 初文이므로 ‘궤(gui)’로 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매우 이른 시기부터 단독으로 쓰이지 않게 되어서 그 독음이 失傳되었다. 《說文》에는 “썩과 같이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𣎵字가 구성요소로 쓰인 鄉字의 독음이지 𣎵字의 독음이 아니다. 《廣韻》에는 무려 네 가지 反切(許良切·彼側切·居立切·彼及切)이 수록되어 있어, 韻書의 편찬자들도 이 글자의 정확한 독음을 알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한다. 金俊秀, < 𣎵旁과 𣎵旁의 字體修正에 대한 建議 > 《中國言語研究》第42輯, 서울: 韓國中國言語學會, 2012年10月, 161-162쪽.

15) 《說文》의 표제자 중에는 이러한 예가 적잖이 보인다. 몇 가지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𠂔(延)·𠂔(爾·爽)·𠂔(展)·𠂔(舞·乘)·𠂔(若)·𠂔(殷)·𠂔(奉·奏·暴·臯)·𠂔(稟·界)·𠂔(脊)·𠂔(父·弗)·𠂔(廐·弋). 이러한 글자들 모두 괄호 안의 글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글자에서 일부를 떼어내 표제자로 세운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저서를 참조한다. 李旭昇, 《說文新證》,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0年10月第1版, 131-132쪽·261쪽·392쪽·483쪽·511쪽·684쪽·807-808쪽·812쪽·882쪽·891-892쪽·893쪽.

## 2.2 古代漢字자료를 이용한 &lt;說文解字&gt;의 오류 정정 및 諧聲계열 재정리

## 2.2.1 溼字의 字源 및 字形 변화 과정

【字形表-01】

 {溼}	 {溼}	 {溼}	 {溼}
01. 殷·合8355	02. 殷·合8356	03. 殷·屯715	04. 西周·史懋壺
 {溼}	 {溼}	 {溼}	 {溼}
05. 西周·伯姜鼎	06. 西周·散盤	07. 楚·郭店·太4	08. 楚·郭店·太3
 {溼}	 {溼}		
09. 秦·石鼓文	10. <說文>小篆		

甲骨文에 보이는 溼字는 지명인데, 商承祚(1923) 이래 溼字로 풀이하는데 이견이 없다.<sup>16)</sup> ‘茲’은 絲字의 생략체인 ‘𦉳’<sup>17)</sup>에 가로획을 덧댄 것으로 젖은 실을 선반에 걸쳐놓은 모습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水旁을 덧붙여 ‘축축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字形01·02】 혹은 止旁을 덧붙여 溼과 같이 쓴 자형도 보이는데 역시 같은 지명 글자이다. 【字形03】<sup>18)</sup>

金文에는 溼字에 土旁을 덧붙인 ‘溼’과 같은 자형이 보이는데, 의미부호 土旁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隰字의 本字일 가능성이 높다. 【字形04】 또한, ‘茲’에서 가운데 가로획을 생략한 ‘𦉳’을 따르는 ‘溼’과 같은 자형도 이미 보인다. 【字形05】 또한 2개의 가로획을 이어서 ‘己’와 같은 모양으로 쓴 자형도 보인다. 【字

16)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第9冊,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4年10月第1版, 溼字條, 193-195쪽.

17) 고대한자에서는 絲字을 생략하여 흔히 ‘𦉳’와 같이 썼다. 예를 들어 樂字·幾字·幽字 등이 따르는 ‘𦉳’가 絲字이다.

18) 季旭昇, 《說文新證》,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0年12月第1版, 溼字條, 830-831쪽. 孫海波, 《校正甲骨文編》, 臺北: 藝文印書館, 1974年10月再版, 溼字條, 849쪽. 劉釗·洪颺·張新俊, 《新編甲骨文編》,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9年5月第1版, 溼字條, 604쪽.

形06】19) 楚簡에서는 생략이 더 진행되어 郭店楚簡에서는 ‘𣶒’를 따라 ‘溼’과 같이 썼다. 【字形07·08】20) 秦의 石鼓文에서는 ‘溼’과 같이 썼는데, 《說文》에 표제자로 올려진 小篆과 자형 구조가 동일하다. 【字形09·10】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溼字의 初文은 ‘𣶒’이므로 ‘溼’은 𣶒字에 의미부호인 土旁를 덧붙인 글자이다. 그러므로 《說文》에서 溼字를 𣶒省聲으로 풀이한 것은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대에 溼字를 대신하여 널리 쓰이게 된 濕字는 漢代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21) 《說文》에서는 이 글자를 𣶒聲으로 풀이하였지만, 이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溼字의 初文이 ‘𣶒’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濕字는 𣶒字에 日旁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글자임이 분명하다.

### 2.2.2 顯字의 字源 및 자형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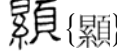

【字形表-02】

 {顯}	 {顯}	 {顯}	 {顯}
01. 西周·孟鼎	02. 西周·毛公鼎	03. 西周·克鼎	04. 晉·侯馬盟書
 {顯}	 {顯}	 {顯}	 {顯}
05. 晉·侯馬盟書	06. 楚·上博三·周易10	07. 楚·上博一·孔子6	08. 楚·上博四·曹沫38
 {顯}	 {顯}	 {顯}	 {顯}
09. 秦·詛楚文	10. 前漢·流沙簡·屯戌6.16	11. 前漢·馬王堆·老子乙前170上	12. 前漢·西陲簡 51.19

19) 容庚,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2002年11月第7刷, 溼字條, 738쪽. 季旭昇, 《說文新證》,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0年12月第1版, 溼字條, 830쪽.

20) 張守中·張小滄·郝建文, 《郭店楚簡文字編》, 北京: 文物出版社, 2000年5月第1版, 溼字條, 157쪽.

21) 漢語大字典字形組, 《秦漢魏晉篆隸字形表》,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6年10月第2刷, 濕字條, 783-784쪽.

			
13. 後漢· 景北海碑陰	14. 後漢· 嵩山太室闕銘	15. 後漢·王孝淵碑	16. 《說文》小篆

顯字는 金文에 대단히 많이 보이는데, 日·絲(=𦉳)·頁을 조합한 자형이 가장 많이 보이며, 간혹 絲旁을 따르는 자형도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說文》에서는 이 글자의 本義를 ‘빛나는 머리 장식’으로 풀이하고, 의미요소 頁과 소리요소 𦉳을 결합한 형성자로 분석하였는데, 林義光(1920)은 일찍이 金文자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說文》에서) 顯字의 의미를 ‘빛나는 머리 장식’이라고 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說文》에서 𦉳字를 “여러 미세한 것들을 일컫는다. 햇볕 속에서 실을 보는 것이다. 古文에서는 顯字로 쓰이기도 하였다.”라고 풀이하였다. 햇볕 속에서 실을 보는 것은 바로 밝게 드러나는 모습(顯明之象)이다. 《廣雅·釋詁四》에서 顯字의 의미를 ‘밝게 드러난다[顯明]’라고 하였다. (顯字는) 사람이 햇볕 아래에서 실을 보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실이라는 것은 본래 (가늘어서) 보기 어려운 것인데, 햇볕에 의지해서 보면 뚜렷하다. …… (𦉳字는) 사실상 顯字의 偏旁이다. 《說文》에서는 溼字를 𦉳省聲이라고 분석하였는데, 溼字와 顯字는 독음이 상당히 거리가 있으므로, 溼字가 𦉳에서 소리를 얻을 수는 없다. 濕字와 隰字 역시 溼字에서 소리를 얻는 글자로, 𦉳을 따르는 것은 자형이 잘못 변화한 탓일 따름이다.<sup>22)</sup>

林義光의 《文源》은 清代의 《說文》學에서 탈피하여 대량의 고대한자자료에 근거해 자형분석을 시도한 저작으로, 출간 이후 근10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보아도 놀라운 정도로 합리적인 설을 다수 제시하고 있어, 고대한자학 관련 詁林類의 서적에 그의 설이 상당량 수록되어 있다.<sup>23)</sup> 그의 顯字에 대

22) “顯頭明飾，無所考。《說文》：‘𦉳，衆微妙也。從日中視絲。古文以爲顯字。’日中視絲，正顯明之象。《廣雅·釋詁四》：‘顯明也。’象人面在日下視絲之形，絲本難視，持向日下視之，乃明也。……(𦉳)卽顯之偏旁。溼字，《說文》以爲𦉳省聲，溼顯聲隔，實不從𦉳。濕隰亦當從溼得聲，形譌從𦉳耳。” 林義光，《文源》，民國九年著者閩縣林氏寫印本，顯字條，卷六 19-20 卒。

23) 周法高，《金文詁林》，京都：中文出版社，1981年10月第1版，顯字條，1452 卒。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古文字詁林》第8冊，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3年12月第1版，顯字條，36

한 풀이 역시 매우 합리적이며, 고대한자학 분야의 입문용 서적에서도 顯字의 풀이에 있어서 林義光의 설을 채택한 경우가 많다.<sup>24)</sup>

다만 林義光의 설에서 아쉬운 점은 金文의 顯字를 日·絲·頁의 조합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金文에는 물론 絲旁을 따르는 자형도 보이지만 【字形03】, 절대 다수는 絲旁을 따른다. 【字形01·02】《金文編》第四版에 顯字의 자형이 총41개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絲旁을 따르는 것은 7개에 불과하다.<sup>25)</sup> 즉, 顯字는 본래 絲旁을 따르는데, 간혹 생략하여 絲旁을 따르기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周代 이후의 자형을 보면, 여전히 絲旁을 따르는 자형도 보이지만, 대세는 絲旁을 따르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侯馬盟書에는 絲旁을 따르는 자형과 絲旁을 따르는 자형이 모두 보이며 【字形04·05】, 楚簡文字에서는 絲旁을 모두 ‘𠄎’와 같이 썼는데, 頁旁까지 생략하여 ‘𠄎’과 같이 쓰기도 하였다.

【字形06·07·08】 상대적으로 비교적 보수적이었던 秦系文字에서는 여전히 絲旁을 따랐는데 【字形09】, 漢代에 이르러 이러한 자형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만다. 前漢 시기의 문자자료 중에는 드물게 絲旁을 따르는 예가 보이지만,

【字形12】, 後漢 이후로는 완전히 맥이 끊겨서 《說文》에 수록된 小篆마저도 絲旁을 따른다. 【字形16】

그렇다면 두 개의 糸를 가로획으로 이은 모양인 絲字는 무슨 글자인가? 이미 裘錫圭(1983)의 방대한 논증을 거쳐서 聯字의 初文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sup>26)</sup>, 劉釗(1991)는 이에 근거하여 顯字의 구조를 소리요소 絲旁이 포함된 형성자로 분석하였다.<sup>27)</sup> 다만, 顯字와 聯字는 상고 운부가 모두 元部에 속하

쪽. 고대한자학의 학술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文源》은 葉玉英(2003)에 의해 그 학술적 가치가 전면적으로 재조명되었다. 葉玉英, 《《文源》의文字學理論研究》, 福州: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年.

24)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長沙: 岳麓書社, 2002年12月第3刷, 顯字條, 1215쪽.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4年1月第2版, 顯字條, 845쪽.

25) 容庚,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2002年7刷, 顯字條, 628-629쪽.

26) 裘錫圭, <戰國璽印文字考釋三篇> 《裘錫圭學術文集》第3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6月第1版, 277-285쪽. 원게재: 《古文字研究》第10輯, 北京: 中華書局, 1983年.

27) 劉釗, 《古文字構形學》,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6年1月第1版, 177쪽. 본 저서는 저자

기는 하나, 성모가 가깝지 않다. 顯字와 聯字 사이에 諧聲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차후 새로운 증거가 출현할 때까지 잠시 판단을 미루어둔다.

### 2.2.3 諧聲계열 재정리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濕字의 오른쪽 절반과 顯字의 왼쪽 절반은 그 유래가 다르다. 濕字는 溼字에 日旁을 덧붙여 만들어진 글자이므로, 그 오른쪽 濕은 본래 氵와 日의 결합이다. 顯字는 본래 日·絲(聯)·頁을 조합하며 만들어진 글자이므로, 그 왼쪽 濕은 日과 絲(聯)의 결합이다. [2] 《說文》에서 小篆體에 의거해 濕字와 顯字를 같은 諧聲계열로 묶은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이는 고대한자자료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緝部에 속하는 濕字과 元部에 속하는 顯字는 상고음이 가깝지 않다. [3] 濕은 독립된 글자가 아니다. 楚簡에 ‘濕’과 같은 자형이 등장하나, 이는 ‘濕’의 생략체에 불과하다.

이상에 근거하여 諧聲계열을 새롭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溼聲系字			顯聲系字		
主諧字	溼	緝部	主諧字	顯	元部
被諧字	溼	緝部	被諧字	顯(顯)	元部
	濕	緝部			
	濕	緝部			
	濕	緝部			

溼聲系와 顯聲系는 별개의 諧聲계열이다. 그러므로 溼聲系에 속하는 溼字의 상고음을 재구하는데 있어서 顯字의 간섭을 배제하여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溼字와 濕字 모두 溼省聲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濕字와 濕字는 字義

의 박사는문을 출판한 것이다. 劉釗, 《古文字構形研究》, 吉林: 吉林大學博士論文, 1991年.

및 字音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溼字에서 분화한 글자로 판단된다.

더불어 한 가지 첨언하자면, 만약 劉釗(1991)의 주장대로 顯字가 絲(聯)字에서 소리를 얻는다면 絲聲系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일단 顯聲系를 독립된 聲系로 세운다.

### 3. 上古音分析

#### 3.1 기존 재구음 분석

중고음에서 무성 치조 경구개 마찰음 ㄷ로 재구되는 書母는 諧聲관계가 대단히 복잡하다. 書母字가 속해있는 諧聲계열에는 중고 성모가 치조 파열음인 글자와 연구개 파열음인 글자를 비롯하여 유음 혹은 비음이 성모인 글자도 섞여있다. 1세대 칼그렌 체계 및 王力 체계에서는 書母의 상고음도 중고음과 동일하게 ㄷ로 재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諧聲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으나, 2세대 李方桂 체계에서부터 몇 종류의 복성모가 구개음화를 거쳐서 중고음의 ㄷ로 합류하였다는 구상이 제기되었고, 이로서 書母字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諧聲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3세대 鄭張尙芳 체계와 B-S 체계 역시 몇 종류의 성모가 구개음화를 거쳐서 중고음의 ㄷ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더욱 정밀해진 諧聲분석과 여러 친족언어 동원어휘의 증거 보강으로 李方桂 체계보다 훨씬 진일보한 재구음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鄭張尙芳 체계에서는 書母(ㄷ)의 상고 연원을 \*hlj- · \*hNj- · \*q<sup>h</sup>j-의 세 종류로 대별하고 있는데, 각각 치조 파열음 및 유음과 해성하는 書母 · 비음과 해성하는 書母 · 연구개 파열음과 해성하는 書母의 연원으로 재구되었다.<sup>28)</sup> B-S

28) 중고 書母(ㄷ)와 관련된 鄭張尙芳 재구음은 金俊秀(2013)의 정리를 참조한다. 金俊秀,

체계에서는 무성 유음 2종류(\* $\text{ɮ}$ ·\* $\text{r}$ )와 무성 비음 2종류(\* $\text{ŋ}$ ·\* $\text{ŋ}$ ), 그리고 s-접두사를 가지고 있는 복성모 5종류(\* $\text{sq}^{\text{h}}$ -·\* $\text{st}$ -·\* $\text{st}^{\text{h}}$ -·\* $\text{sk}$ -·\* $\text{sk}^{\text{h}}$ -) 및 구개수 파열음 1종류(\* $\text{q}^{\text{h}}$ -)가 書母의 연원으로 재구되었다. 개별적인 諧聲분석에서 양자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보자면 鄭張尙芳의 \* $\text{hŋj}$ -에 해당하는 것이 \* $\text{ɮ}$ ·\* $\text{r}$ ·\* $\text{st}$ -·\* $\text{st}^{\text{h}}$ -이며, \* $\text{hNj}$ -에 해당하는 것이 \* $\text{ŋ}$ ·\* $\text{ŋ}$ 이고, \* $\text{q}^{\text{h}}$ -에 해당하는 것이 \* $\text{q}^{\text{h}}$ -·\* $\text{sk}$ -·\* $\text{sk}^{\text{h}}$ -이다.

우선 溼字와 濕字에 대한 鄭張尙芳(2003)과 B-S(2011)의 재구음을 표로 정리하여 아래에 나열한다.<sup>29)</sup>

		上古再構音	中古再構音 (《切韻》音韻地位)
鄭張尙芳	溼	* $\text{hŋjw}$ b (緝1部)	〈 $\text{eiip}$ (書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濕	* $\text{ŋ}^{\text{h}}\text{w}:\text{r}:\text{b}$ (緝1部) * $\text{t-ŋ}^{\text{h}}\text{w}:\text{r}:\text{b}$ (緝1部)	〈 $\text{t}^{\text{h}}\text{ɿp}$ (透母合韻入聲開口一等) 〉 탐
B-S	濕	* $\text{q}^{\text{h}}\text{ip}$ (*-ip group)	〈 $\text{syip}$ (書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溼	* $\text{s-q}^{\text{h}}\text{ip}$ (*-ip group)	

鄭張尙芳(2003)은 중고음에서 書母(ɿ-)로 읽히는 溼字는 \* $\text{hŋjw}$ b으로 재구하였고, 透母( $\text{t}^{\text{h}}$ -)로 읽히는 濕字는 \* $\text{ŋ}^{\text{h}}\text{w}:\text{r}:\text{b}$ 과 \* $\text{t-ŋ}^{\text{h}}\text{w}:\text{r}:\text{b}$  2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가 이와 같이 재구한 것은 이 諧聲계열의 핵자음을 연구개 비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중고 성모가 疑母(ŋ-)에 속하는 僞字와 濕字에 근

<出土資料에 根據하여 본 設字·身字·首字·舜字·信字의 上古 聲母> 《中國學論叢》 第42輯,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년11월, 5-8쪽.

29) 鄭張尙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년12월第1刷, 462쪽. Baxter-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Version 1.00, 2011년2월20日), Centre de recherches linguistiques sur l'Asie orientale (東亞語言研究所), <http://crlao.ehess.fr/document.php?id=1217> 참고로 언급하자면, 李方桂(1971)는 濕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재구음을 제시하였다. \* $\text{k}^{\text{h}}\text{jəp}$  >  $\text{k}^{\text{h}}\text{jəp}$  / \* $\text{sk}^{\text{h}}\text{jəp}$  >  $\text{sjəp}$  그런데 溼字와 濕字 모두 溪母( $\text{k}^{\text{h}}$ -) 독음은 없으므로, 이것은 미스 프린트가 분명하다. 濕字는 중고음에서 透母( $\text{t}^{\text{h}}$ -)로 읽히므로, 상고 성모는 그대로 \* $\text{t}^{\text{h}}$ -가 되며, 李方桂 체계에서 치조 파열음과 해성하는 書母(ɿ-)의 상고 성모는 \* $\text{st}^{\text{h}}$ -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 $\text{t}^{\text{h}}\text{jəp}$  >  $\text{t}^{\text{h}}\text{jəp}$ 과 \* $\text{st}^{\text{h}}\text{jəp}$  >  $\text{sjəp}$ 가 된다. 李方桂, 《上古音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3년9월第5刷, 44쪽.

거한 것으로 보인다.<sup>30)</sup> 그런데 濕字의 재구음으로 \*ɲʰi'wɨ:b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유음과의 관련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고 성모가 邪母(z- < \*lj-)에 속하는 隰字와의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B-S(2011)는 透母(tʰ-) 독음에 해당하는 재구음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書母(sy-) 독음에 해당하는 재구음을 2가지 제시하였다. 《詩經·小雅·無羊》: “爾牛來思, 其耳濕濕(너의 소가 귀를 펴럭거리면서 온다)”<sup>31)</sup>의 濕字를 \*qʰip으로 재구하였고, 低濕地를 의미하는 溼字는 \*s-qʰip으로 재구하였다. B-S 상고 재구음 체계에서 중고시기에 이르러 書母(sy-)로 변한 \*s-qʰ-의 실례는 溼字가 유일하다.

### 3.2 金文의 通假例 및 ‘龔(갑자기 공격하다)’의 本字

#### 【字形表-03】

 {龔}	 {溷}	 {龔}	 {溷}
01. 殷·龔鬲 <sup>32)</sup>	02. 西周·晉侯鞞盤	03. 西周·致簋	04. 西周·敵簋

殷代와 周代의 청동기 銘文에는 龔과 溷과 止를 결합한 형태의 龔字 및 龔과 溷을 결합한 溷字가 몇 차례 보이는데, 고대한자에서 止旁과 龔(彳+止)旁은 의미부호로서 혼용되므로, ‘龔’과 ‘溷’은 같은 글자이다. (이하 ‘溷’으로 이 글자를 대표한다) 溷字의 해독에 있어서 宋代에서부터 여러 설이 있었다. 迎字로 풀이하는 설·絶字로 풀이하는 설·御字로 풀이하는 설·顯字로 풀이하는

30) 龔: 미련할 암(án), 불안할 암(án) / 溷: 미련할 암(án), 웃으며 말할 암(è). 현대 중국어 독음은 《異體字字典》에 근거하였다. 中華民國教育部,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31) 滕志賢注譯·葉國良校閱, 《新譯詩經讀本(下)》, 臺北: 三民書局, 2001年2月第2刷, 548쪽.

32) 《金文編》第四版에는 이 글자가 御字條에 들어있고, 器名을 御鬲이라고 하였다. 이는 오류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龔鬲(습력)으로 정정한다.

설·闕字로 풀이하는 설 등이 있었으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sup>33)</sup>

이 글자의 해독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것은 1992년도에 출토된 晉侯鞞 璽의 邇字였다. 【字形02】 馬承源(1993)은 이 청동기의 銘文에 보이는 ‘邇邇’이 바로 《周禮·夏官》에 나오는 ‘邇隰(=原隰)’임을 밝혀내었고<sup>34)</sup>, 이것에 착안하여 裘錫圭(1994)는 斝簋의 ‘追邇’과 敵簋의 ‘追邇’을 ‘追襲’으로 읽어내었다.<sup>35)</sup> 【字形03·04】 隰字와 襲字는 상고 운부가 모두 緝部이고, 중고음의 음운지위가 동일하므로, 裘錫圭는 隰字로 읽히는 邇(=邇)字가 襲字로도 읽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陳美蘭(1998)<sup>36)</sup>·黃德寬(1999)<sup>37)</sup>의 보다 상세한 검토를 거쳐 邇字를 襲字로 해독하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으며, 黃德寬(1999)은 ‘갑자기 공격하다’라는 의미의 襲字의 本字가 사실상 邇字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襲字는 본래 시체를 염할 때 망자에게 입히는 수의를 뜻한다. 《說文·衣部》: “襲,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옷이다.”<sup>38)</sup> 즉, ‘시체를 殮襲하다’의 襲字가 이 글자의 本義 용법이며, ‘적을 襲擊하다’의 襲字는 假借 용법인 것이다. 그리고 邇字야말로 ‘갑자기 공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적기 위해 만든 글자인데, 그 구조는 溇(溇字의 初文)의 생략체인 𣎵에서 소리를 취하고, 辵(혹은 止)과 卩에서 의미를 취해서 만든 형성자로 분석할 수 있다.<sup>39)</sup> 다만 후세에 本字인 邇字가 쓰이

33) 여러 舊說에 대해서는 陳美蘭(1998)을 참조한다. 陳美蘭, <金文札記二則 - ‘追邇’、‘淖淖列列’> 《中國文字》新廿四期, 臺北: 藝文印書館, 1998年12月, 62-63쪽.

34) 馬承源, <晉侯鞞璽> 《第二屆國際中國古文字學研討會論文集》, 香港: 香港中文大學中國語言及文學系, 1993年, 227-229쪽.

35) 裘錫圭, <關於晉侯銅器銘文的幾個問題> 《裘錫圭學術文集》第3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6月第1版, 75쪽. 원게재: 《傳統文化與現代化》1994年第2期.

36) 陳美蘭, <金文札記二則 - ‘追邇’、‘淖淖列列’> 《中國文字》新廿四期, 臺北: 藝文印書館, 1998年12月, 61-67쪽.

37) 黃德寬, <‘緜’及相關字的再討論> 《中國古文字研究》第1輯,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1999年6月, 321-323쪽.

38) “襲, 左衽袍.” 이에 대해서 朱駿聲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무릇 망자를 염할 때는 옷깃을 왼쪽으로 하고 끈으로 묶지 않는다.(凡殮死者左衽, 不紐.)” 【清】朱駿聲, 《說文通訓定聲》臨囑閣刻本, 北京: 中華書局, 1998年12月第2刷, 113쪽.

39) 邇字가 따르는 𣎵旁을 聯字의 初文인 緜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이는 고대한자에 흔히

지 않게 되었고 가차자인 襲字만이 살아남아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더불어 지적하자면 《金文編》第四版의 御字條에는 翹字와 翹字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물론 오류이며, 이미 嚴志斌(2001)에 의해서 정정되었다.<sup>40)</sup> 【字形01·03】

### 3.3 수정 재구음 제시

西周시기의 청동기인 晉侯鞞의 銘文에서 漚字가 隰字로 가차되어 쓰였다는 점, ‘갑자기 공격하다’라는 의미의 襲字의 本字가 바로 漚字이며 攸篋와 敵篋의 銘文에서 실제로 그렇게 쓰인 용례가 보인다는 점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상고 중국어에서 溼字와 襲字는 독음이 같았거나 매우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갑골문에 보이는 지명 글자 溼字 역시 止旁을 따르는 글자 구조로 보았을 때 ‘갑자기 공격하다’라는 의미의 襲字의 本字로 보이는데, 이 글자가 지명으로서 溼字의 初文인 溼字와 혼용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sup>41)</sup>

許慎은 襲字와 그 소리부호인 隰字<sup>42)</sup>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說文·衣部》: “襲,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옷이다. 衣에서 의미를 얻고, 隰의 생략체에서 소리를 얻는다. 襲, 籀文의 襲字는 소리부호 隰을 생략하지 않는다.”<sup>43)</sup> 《說文·龍部》: “隰, (하늘을) 나는 용이다. 두 마리 龍을 따른다. 沓字처럼 읽는다.”<sup>44)</sup> 金文에서 襲字를 실제로 ‘襲’과 같이 썼으므로<sup>45)</sup>, 許慎의 자형 분석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鄭張尙芳(2003)과 B-S(2011)는 이 두 글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재구하였다.<sup>46)</sup>

보이는 偏旁混同현상에 불과하다. 聯字와 襲字는 古音이 가깝지 않으므로, 漚字가 따르는 漚旁은 역시 溼字의 初文인 溼의 생략체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40) 嚴志斌, 《四版《金文編》校補》, 長春: 吉林大學校出版社, 2001年8月第1版, 19쪽.

41) 孫海波, 《校正甲骨文編》, 臺北: 藝文印書館, 1974年10月再版, 溼字條, 849쪽.

42) 나는 용 답(tà).

43) “襲, 左衽袍。從衣, 隰省聲。襲, 籀文襲, 不省。”

44) “隰, 飛龍也。從二龍。讀若沓。”

45) 容庚,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2002年11月第7刷, 襲字條, 586쪽.

		上古再構音	中古再構音 (《切韻》音韻地位)
鄭張尙芳	龔	*l'urb (緝1部)	〉 dɒp (定母合韻入聲開口一等) 〉 답
	襲	*ljub (緝1部)	〉 zip (邪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B-S	龔	재구음 제시하지 않음	〉 dop (定母合韻入聲開口一等) 〉 답
	襲	*sə.ləp (*-əp group)	〉 zip (邪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襲字는 중고 성모가 邪母(z-)이므로 상고 성모는 \*lj이다.<sup>47)</sup> 그러므로 襲字의 소리부호인 龔字의 상고 성모도 유음이었는데, 후세에 파열음화하여 중고의 定母(d-)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48)</sup> B-S의 경우 襲字의 상고 재구음에 副音節(minor syllable)을 설정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역시 핵자음을 유음으로 재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溼字의 상고 성모 역시 유음이 핵자음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3.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유음과 諧聲하는 중고 書母(ɕ-)의 상고 연원은 \*hlj-(鄭張尙芳)와 \*l-(B-S)인데, 溼字의 상고 재구음에 이를 적용하면 濕字의 透母(tʰ-) 독음 문제는 물론 隰字와의 독음 연계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46) 鄭張尙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年12月第1刷, 297쪽. Baxter-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 (Version 1.00, 2011年2月20日), Centre de recherches linguistiques sur l'Asie orientale (東亞語言研究所), <http://crlao.ehess.fr/document.php?id=1217>

47) 李方桂 체계에서는 邪母(z-)의 상고 연원으로 \*lj-가 설정되었으나, 뒤이는 학자들의 연구로 以母(j-)의 상고 연원이 \*r-에서 \*l-로 변경됨에 따라, 邪母(z-)의 상고 연원도 \*lj-로 수정되었다.

48) 鄭張尙芳 체계에서는 후대에 파열음으로 변화한 유음에는 프라임 부호(prime symbol) '를 덧붙인다. 鄭張尙芳은 이같은 유음의 파열음화 현상의 방증 자료로 閩南語의 l-을 예로 들었다. 鄭張尙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年12月第1刷, 134쪽. 첨언하자면 閩南語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주민들이 두리안(durian)을 榴蓮이라고 음역한 것에서도 閩南語의 l-이 유성을 d-와 소릿값이 가까움을 알 수 있다.

	鄭張尙芳 재구음		본 논문의 수정 재구음
溼	*hŋjub (緝1部)	〉 eip (書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hljub
濕 (=溼)	*ŋ <sup>h</sup> l'urb (緝1部)	〉 t <sup>h</sup> Δp (透母合韻入聲開口一等)	〉 답 *t <sup>h</sup> urb
	*t-ŋ <sup>h</sup> urb (緝1部)		
隰	*ljub (緝1部)	〉 zip (邪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ljub 49)
濕	재구음 제시하지 않음	〉 t <sup>h</sup> ip (徹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칩 *t <sup>h</sup> ub

鄭張尙芳(2003)의 재구음에서는 이 聲系의 핵자음을 연구개 비음 ŋ-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濕字의 透母(t<sup>h</sup>-) 독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 그 결과, \*ŋ<sup>h</sup>l'- 혹은 \*t-ŋ<sup>h</sup>-과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복성모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襲字와의 通假관계에 근거하여 핵자음을 유음 l-로 수정하면, 透母(t<sup>h</sup>-) 독음의 상고 연원을 \*t<sup>h</sup>-로 재구할 수 있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유음이 핵자음인 諧聲계열에 透母字는 상당히 흔히 보이는데, 胎字·通字·湯字·滔字·他字 등이 그러한 예로서, 이들의 상고 성모는 모두 \*t<sup>h</sup>-이다.

隰字는 중고 성모가 邪母(z-)이므로 그 상고 성모는 \*lj-가 되는데, 鄭張尙芳은 이 聲系의 핵자음을 연구개 비음 ŋ-으로 판단하였던 탓에, 隰字는 같은 諧聲계열에 속하는 溼字와 상고 성모가 가깝지 않았다. 그런데 핵자음을 유음 l-로 수정하면서 이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었다.

3.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鄭張尙芳이 이 聲系의 핵자음을 ŋ-으로 본 것은, 중고 성모가 疑母(ŋ-)에 속하는 隰字와 濕字에 근거한 것인데, 隰字와 濕字는 모두 《說文》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後起字이다. 비록 《荀子·不苟》에 隰字가 보이기는 하지만<sup>50)</sup>, 자료로서의 경중을 따진다면 고대한자자료에 보이는 襲字와의 관계보다 증거력이 박약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sup>51)</sup>

49) 隰字의 재구음은 수정하지 않았다.

50) 《荀子·不苟》: “通則驕而偏, 窮則棄而隰。(잘 나갈 때는 교만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빈곤할 때는 자포자기하고 어리석게 군다.)”

51) 《上古音系》의 <古音字表>에 실린 재구음 중에는 이와 같이 後起字에 근거한 것이 몇몇 보이는데, 身字 역시 그러하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한다. 金俊秀, <出土資料에 根據하여 본 設字·身字·首字·舜字·信字의 上古 聲母> 《中國學論叢》第42輯,

본 논문의 수정 구상을 B-S 체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B-S 재구음	본 논문의 수정 재구음
溼	*s-q <sup>h</sup> ip (*-ip group) > syip (書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ɿip
濕(=溼)	재구음 제시하지 않음 > t <sup>h</sup> op (透母合韻入聲開口一等) > 탑	*ɿip
隰	*s-N-qip (*-ip group) > zip (邪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sə.lip
濕	재구음 제시하지 않음 > tr <sup>h</sup> ip (徹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칩	*ɿrip

역시 襲字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핵자음을 유음 l-로 설정하였다. B-S 체계에서 書母(sy-)의 상고 연원 중에 유음 계열은 \*ɿ이 있으며, 透母(t<sup>h</sup>-)의 상고 연원 중에 유음 계열로는 역시 \*ɿ이 있다.<sup>52)</sup> 또한 邪母(z-)의 상고 연원 중에 유음이 핵자음인 것은 \*sə.l-이 있으며, 徹母(tr<sup>h</sup>-)의 연원 중에 유음 계열은 \*ɿr-이 있어서, 각각 그것들을 재구에 사용하였다.

끝으로 운부에 대해서 언급한다. 鄭張尙芳 체계에서는 緝部를 셋으로 나누어 각각 緝1部(\*-ub) · 緝2部(\*-ib) · 緝3部(\*-ub)라 칭하였고, B-S 체계 역시 緝部를 \*-əp group · \*-ip group · \*-up group과 같이 셋으로 나누었다. 대체적인 틀은 이와 같이 유사하나, 세부적인 글자 분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글자들의 경우를 보자면, 鄭張尙芳(2003)은 隸聲系와 滋聲系의 운부를 이미 모두 緝1部로 재구하였기 때문에, 滋聲系의 핵자음을 유음 l-로 고쳐서 재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B-S(2011)는 隸聲系에 속하는 襲字는 \*-əp group으로 분류하였지만, 滋聲系에 속하는 溼字와 隰字는 \*-ip group으로 분류하였다. 두 聲系의 관련성을 고려해 본다면, 운부를 동일한 group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년11월, 14-15쪽.

52) 鄭張尙芳 체계에서는 중고음의 각 성모들을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상고 연원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B-S 체계에서는 동일한 상고 성모가 중고음에서 다르게 변화하기도 한다.

나, 운부의 분류는 중고음과의 관계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구음 체계마다 각자의 분류 기준이 있다. 본 논문은 고대한자자료에 근거하여 기존의 재구음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재구음 체계 자체에 손을 대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논문에서는 성모만을 유음 계열로 수정 재구하는 것에 그친다.

#### 4. 結論

‘축축하다’라는 뜻인 溼字의 初文은 甲骨文에 보이는데, 水와 𣶒을 결합하여 ‘溼’과 같이 썼다. 𣶒은 젖은 실을 선반에 걸쳐놓은 모양으로 추정되며 水旁을 덧붙여 字義를 더욱 잘 나타내게 한 것으로 보인다. 漢代에 등장한 이래 溼字 대신 사용되고 있는 濕字는 《說文》에 의하면 본래 ‘답(tà)’으로 읽는 山東省의 강이름인데, 溼字에 日旁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글자이다.

‘드러나다’라는 뜻인 顯字는 金文에 많이 보이는데, 日과 𣶒과 頁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裘錫圭(1983)에 의하면 𣶒은 聯字의 初文이다. 小篆體로는 濕字의 오른쪽 편방과 顯字의 왼쪽 편방이 완전히 같은 모양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경로로 성립된 자형이다. 許慎이 小篆體에 의거해 溼字 및 濕字를 顯字와 같은 諧聲계열로 묶어서 모두 𣶒에서 소리를 얻는 형성자로 분석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𣶒(=𣶒)’과 같은 자형은 楚簡에 보이는데, 顯字의 생략된 서사법에 불과하며, 濕字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므로 溼字와 관련된 글자들의 諧聲계열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溼字를 主諧字로 세워서 溼字·濕字·隰字·壩字를 그 被諧字로 귀속시키고, 顯字는 이 諧聲계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溼聲系字의 상고 운부는 모두 緝部에 속하는데, 顯字는 元部에 속하므로, 古音學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같은 諧聲계열의 재정리는 타당하다.

鄭張尙芳(2003)은 溼聲系字의 핵자음을 연구해 비음  $\eta$ -으로 설정하였고,

B-S(2011)는 구개수 파열음 q-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고대한자자료에 보이는 漚(=漚)字와 襲字의 음성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漚聲系字의 핵자음을 유음 l-로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金文에 보이는 漚(=漚)字는 漚字의 생략체에서 소리를 얻는 글자인데, 隰字로 읽히기도 하며 襲字로 읽히기도 한다. 黃德寬(1999)은 ‘잡자기 공격하다’라는 뜻인 襲字의 本字가 바로 漚字라고 보았다.

襲字는 隰字에서 소리를 얻는 글자인데, 그 상고 성모는 유음 l-이다. 그러므로 襲字와 通假관계에 있는 漚字의 상고 성모 역시 유음 l-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漚聲系字의 핵자음을 유음 l-로 수정 재구하면, 漚字의 透母(t<sup>h</sup>-) 독음의 연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뿐더러, 隰字의 邪母(z-) 독음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본 논문의 이러한 구상을 鄭張尙芳 체계와 B-S 체계에 적용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涇(漚) \*hljub (緝1部) > ciip (書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濕(漚) \*l<sup>h</sup>ur:b (緝1部) > t<sup>h</sup>Ap (透母合韻入聲開口一等) > 탑  
 隰 \*ljub (緝1部) > ziip (邪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塢 \*l<sup>h</sup>ub (緝1部) > t<sup>h</sup>iip (徹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칩

涇(漚) \*ljip (\*-ip group) > syip (書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濕(漚) \*l<sup>h</sup>iip (\*-ip group) > t<sup>h</sup>op (透母合韻入聲開口一等) > 탑  
 隰 \*sə.liip (\*-ip group) > zip (邪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습  
 塢 \*l<sup>h</sup>rip (\*-ip group) > tr<sup>h</sup>iip (徹母緝韻入聲開口三等) > 칩

## &lt; 參考文獻 &gt;

- 【東漢】許慎撰，【宋】徐鉉校定，《說文解字》同治十二年番禺陳昌治刻本，北京：中華書局，2004年2月第22刷。
- 【南唐】徐鉉，《說文解字繫傳》清道光年間祁雋藻刻本，北京：中華書局，1998年12月第2刷。
- 【清】顧藹吉，《隸辨》康熙五十七年項綱玉淵堂刻本，北京：2003年12月第2刷。
- 【清】朱駿聲，《說文通訓定聲》臨嘯閣刻本，北京：中華書局，1998年12月第2刷。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http://dict.variants.moe.edu.tw>。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古文字詁林》第8冊，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3年12月第1版。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古文字詁林》第9冊，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4年10月第1版。
- 李方桂，《上古音研究》，北京：商務印書館，2003年9月第5刷。
- 林義光，《文源》，民國九年著者閩縣林氏寫印本。
- 周法高，《金文詁林》，京都：中文出版社，1981年10月第1版。
- 季旭昇，《說文新證》中國版，福州：福建人民出版社，2010年10月第1版。
- 金俊秀，〈𠂔旁과 辵旁的 字體修正에 대한 建議〉《中國言語研究》第42輯，서울：韓國中國言語學會，2012年10月。
- 金俊秀，〈出土資料에 根據하여 본 設字·身字·首字·舜字·信字의 上古 聲母〉《中國學論叢》第42輯，서울：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2013年11月。
- 孫海波，《校正甲骨文編》，臺北：藝文印書館，1974年10月再版。
- 容庚，《金文編》第四版，北京：中華書局，2002年11月第7刷。
- 馬承源，〈晉侯鞞壘〉《第二屆國際中國古文字學研討會論文集》，香港：香港中文大學中國語言及文學系，1993年。
- 陳初生，《金文常用字典》，西安：陝西人民出版社，2004年1月第2版。
- 陳美蘭，〈金文札記二則－‘追邕’、‘淖淖列列’〉《中國文字》新廿四期，臺北：藝文印書館，1998年12月。
- 張守中·張小滄·郝建文，《郭店楚簡文字編》，北京：文物出版社，2000年5月第1版。
- 湯可敬，《說文解字今釋》，長沙：岳麓書社，2002年12月第3刷。
- 黃德寬，〈‘絲’及相關字的再討論〉《中國古文字研究》第1輯，長春：吉林大學出版社，1999年6月。
- 裘錫圭，〈戰國璽印文字考釋三篇〉《裘錫圭學術文集》第3卷，上海：復旦大學出版社，

2012年6月第1版。

裘錫圭, <關於晉侯銅器銘文的幾個問題> 《裘錫圭學術文集》第3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6月第1版。

葉玉英, 《《文源》的文字學理論研究》, 福州: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年。

漢語大字典字形組, 《秦漢魏晉篆隸字形表》,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6年10月第2刷。

劉 釗, 《古文字構形學》,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6年1月第1版。

劉 釗·洪颺·張新俊, 《新編甲骨文編》,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9年5月第1版。

鄭張尚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年12月第1刷。

滕志賢注譯·葉國良校閱, 《新譯詩經讀本(下)》, 臺北: 三民書局, 2001年2月第2刷。

嚴志斌, 《四版《金文編》校補》, 長春: 吉林大學校出版社, 2001年8月第1版。

Baxter-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 (Version 1.00, 2011年 2月 20日),  
Centre de recherches linguistiques sur l'Asie orientale (東亞語言研究所),  
<http://crlao.ehess.fr>

### < 中文提要 >

溼字初文作溼，見於卜辭，字從水從𣎵，‘𣎵’為將絲攤於架上之形。濕字本為水名，讀作tà，後世以‘濕代溼’，因此後人由‘溼’為水名，‘溼’本為濕字之訛體。《說文》認為濕字從𣎵聲，非是。濕字是在溼字上增加日旁而造，與𣎵字(顯字之省體)無關。

顯字屢見於銅器銘文，其結構為從日從絲從頁，絲為聯字之初文。由於濕字右半與顯字左半小篆寫法完全一致，《說文》誤以為皆從𣎵聲，而實際上二者來源不同，並非屬於同一諧聲系列。又，顯字古韻隸於元部，而溼聲系字古韻全屬於緝部，二者古音遠隔，互不通轉。因此，構擬溼聲系字之古音，排除顯字方能得到正確的結論。

鄭張尚芳(2003)將溼聲系的聲幹構擬作舌根鼻音ŋ-，B-S(2011)則作小舌塞音q-，而本文認為其聲幹應當是流音l-。溼(=𣎵)字見於金文，結構可析為從從從口溼省聲，在銅器銘文中或讀隰，或讀襄。黃德寬(1999)認為溼字才是襄擊之襄的本字。溼字與襄字古音密近無疑。襄字從隰聲，隰聲系的聲幹為流音l-，由此可推知，溼聲系的聲幹亦為流音l-。如此構擬，利於解釋濕字的透母讀音的來源，亦可解決隰字的邪母讀音問題。

關鍵詞: 上古漢語, 古音構擬, 諧聲, 溼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9. 28.	2014. 10. 20.	2014. 11. 3.	2014. 11. 10.	2014. 11. 30.